

도둑 잡는 도둑, 청길동



도술에 능하고 신출귀몰한 남다른 재주를 가진 옛 흥길동을 기리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 인물 청길동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그림책. 청길동은 도둑이지만 백성의 것을 탐해 본 적이 없다. 늘 남의 것을 탐하여 자기 배만 불린 자들의 공간을 털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 준다. 편법과 속임수로 백성들의 것을 갈취한 권력 무리배들에게 청길동은 단순한 ‘도적 수괴’ 일뿐이지만,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의인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억압받고 가난한 이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청길동 같은 존재가 절실한 현실을 담은 그림책

표영민 글, 김옥재 그림

주제	옛이야기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다시 쓰기
권장 차시	8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군
관련 주제어	옛이야기, 다시쓰기, 패러디, 흥길동, 정의, 인권, 더불어살기, 문제해결, 다양성
교육 과정 연계	<p>국어</p> <p>[6국02-01]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6국05-02]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국03-01] 쓰기는 절차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p> <p>사회</p> <p>[6사02-01]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 사람들의 활동을 탐구한다.</p>
작성	서울 월곡초등학교 남진희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제공)

허균이 쓴 최초의 국문 소설인《홍길동전》은 시대에 따라 재해석이 입혀져 다양한 버전으로 출간되었다. 표영민 작가와 김옥재 화가가 의기투합하여 옛 홍길동을 기리고 새로운 홍길동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그림책 《도둑 잡는 도둑, 청길동》을 만들었다. ‘청길동’은 홍길동의 후예이긴 하지만 홍길동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작가의 뜻이 담긴 작명이다. 까막까치가 말을 하고 도깨비가 밤새 춤을 추는 시대의 이야기이다. 왕은 풍년이 들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대노한 왕은 신하들을 모아 놓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서둘러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호통을 쳤다. 최대감은 산 넘고 물 건너 물어 물어 청길동을 찾아갔고, 청길동은 임금님의 말과 공주님의 옷을 빌려 도깨비를 만나러 간다. 도깨비들에게 얻은 도깨비방망이를 들고 궁궐 가득 신하들 앞에서 “부잣집 곳간의 쌀들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날아갈지어다!”를 외치자 신하들의 곳간의 쌀이 모두 어려운 이들의 집으로 이동한다.《도둑 잡는 도둑, 청길동》은 현대 사회에 맞춤형 가르침과 현실 비판이 담겨 있다. 가난한 이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청길동 같은 존재가 절실한 현실이다. 시대에 어울리는 인물상을 새롭게 그리는 것이 고전 다시 쓰기의 매력 아닐까 싶다.

■ 학습 목표

- 옛이야기가 작가에 의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며 읽을 수 있다.
-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새롭게 글을 쓸 수 있다.
-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그림책을 통해 탐구한다.
- 옛이야기를 자신의 관점으로 다시 쓸 수 있다.

■ 수업 준비

작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도 하지만, 기존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꾸어 이야기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도 한다. 표영민 작가는 허균의 홍길동전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새롭게 글을 썼다. 학생들이 알고 있던 홍길동전과 ‘도둑 잡는 도둑, 청길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 보며 이야기 다시 쓰기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보려 한다. 작가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의 흐름과 의도를 바꾼다. 특히, 옛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에 다양하게 해석된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마다 자신만의 관점과 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기에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또한 옛이야기는 권선징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주제가 분명해서 학생들이 다시 쓰기 활동으로 시작하기에 적절하다. 이 수업에서는 옛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바꾸거나 갈등과 문제점을 다르게 해결해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써보고자 한다. 옛이야기를 새롭게 쓰면서 이야기 전수의 즐거움을 느껴보면 좋겠다.

■ 학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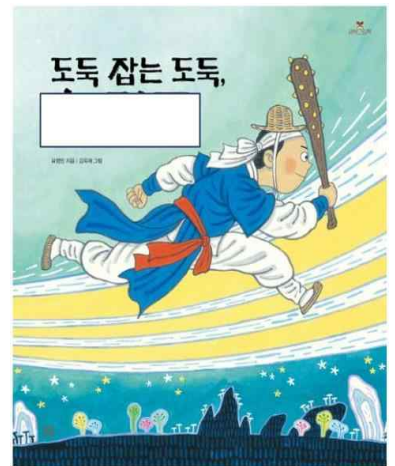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제목 맞추기 놀이 홍길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말하기	1차시
읽는 중	잠깐 멈추고 상상하기	
	내용 파악하기 - 문제 확인하기 - 인물 살펴보기 - 인상적인 장면이나 궁금한 점 나누기	2차시
	홍길동과 청길동의 같은 점, 다른 점 찾기	1차시
읽은 후	인물들의 감정 상상하기	1차시
	뒷이야기 상상하기	1차시
	옛이야기 다시 쓰기 발표하고 소감 나누기	2차시

읽기 전

1. 제목 맞추기 놀이

■ 제목 예상하기

- 표지를 살펴보고 □안에 들어갈 말을 예상해 봅시다.
예) 도둑 잡는 도둑, 최고 도둑! 도둑 왕! 으르렁? 도깨비?
- 힌트를 주자면, 마지막 글자가 ‘동’입니다.
예) 금은동, 이겨동, 오도동, 홍길동 등
- 길동까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성은 무엇일까요? 표지 그림을 잘 살펴봅시다.
예)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으니 도길동 아닐까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니 파길동일 것 같아요.
- 정답은 ‘도둑 잡는 도둑, 청길동!’입니다.
- 표지에서 보이는 것들을 더 이야기 해봅시다.
예) 도깨비방망이, 청길동, 번개, 산, 별 등



- 그럼 도둑 잡는 도둑이 청길동이라면, 청길동은 도둑인가요?
예) 도둑을 잡는 도둑이니까 나쁜 도둑은 아닐 것 같아요.
도둑을 잡는 도둑이라고 해도 도둑은 도둑일 것 같아요.

2. 흥길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말하기

■ 배경지식 나누기

- 흥길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 조선시대 유명한 도둑이에요. 호형호제 하지 못해서 가출했다고 들었어요.
율도국의 왕이 되었는데, 거기는 도둑도 없고 모두가 배부르게 잘 살았어요. 등

Tip. 먼저 아이들이 알고 있는 ‘흥길동전’에 대해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도록 발표합니다.
흥길동과 청길동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가며 그림책을 읽으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흥길동과 이 그림책의 청길동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하면서 그림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어 주겠습니다.

읽는 중

1. 잠깐 멈추고 상상하기



■ 뒷이야기 상상하기

-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청길동은 이 도깨비 방망이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상상해 봅시다.
예) 방망이야, 부자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백성에게 빼앗은 곡식을 내놓아라!
사람들이 먹지 않고 쌓아둔 곳간의 음식들을 가난한 백성들의 집으로 가져라.
방망이야, 부자들의 곳간에 있는 쌀들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어라. 등

Tip. 엉뚱하고 이상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해주세요.

2. 내용 확인하기

■ 문제 확인하기

- 임금님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예) 굶주린 백성들의 가난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 최대감은 왜 청길동을 불렀을까요?
예) 청길동이 도둑이긴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하들은 싸우기만 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인물이 필요했어요. 등
- 청길동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예)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와 백성들의 것을 부정하게 빼앗은 신하들의 공간에 있던 쌀들을 가난한 백성들의 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 청길동은 어떻게 되나요?
예) 청길동을 마음에 들어한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어요.
- 도둑 잡는 도둑, 청길동에서 도둑은 누구였나요?
예) 신하들이었어요. 백성들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던 것입니다.

■ 인물 살펴보기

- 최대감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신하들 편이었을까? 왕(백성)의 편이었을까요?
예) 자기 배를 먼저 채우는 신하였지만 임금의 편에서 백성들이 굶는 것을 보는 것도 괴로워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신하들처럼 살았지만 백성을 불쌍하게 여긴 것 같아요.
- 왕은 어떤 임금이었을까요?
예) 성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것을 듣자마자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백성들을 챙기려고 해요.
청길동을 믿고 딸을 소개해준 부분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잘 살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신하들만 믿었던 것이 어리석어요.
- 공주는 옛이야기에 등장하는 공주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청길동이 맘에 든다고 적극적으로 말했던 점이 달라요.
자기 짝을 스스로 찾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 청길동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똑똑한 사람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소신이 있어요. 부자들의 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도둑으로 잡힐 수 있는데도 계속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울 수도 있지만 도깨비를 만나러 가서 해결했으니까요.

■ 인상적인 장면이나 궁금한 점 나누기

- 인상적인 장면이나 문장을 나눠 봅시다.
예) 말이 공주로 변하는 장면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떤 소리를 냈을지 궁금해요. 공주의 모습으로 말의 소리를 내면 정말 웃길 것 같아요. 말이 말을 잘 들었던 것이 인상적이예요.
신하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웃겼어요. 이 문제는 신하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진작 적당히 나눠 먹었으면 다 빼앗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청길동이 도둑 잡는 도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둑을 찾아내는 경찰 같았어요.

- 그림책을 읽으며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질문해봅시다.

예) 왜 옛이야기에서는 부자들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나누지 못하는 걸까요?

-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눠 봅시다.

예) 실제로도 세계의 부자들은 적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자꾸만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누다 보면 자신의 것이 줄어드니까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지 못했어요. 등

- 옛이야기에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 흥길동이나 임걱정은 의적이 되었어요.

콩쥐 팥쥐에서는 동물들이 콩쥐를 도와줘요.

심청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고, 왕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주었어요.

춘향전에서는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부패한 관료들을 벌했던 것 같아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에서는 작은 동물들과 물건들이 할머니를 도와주었어요.

- 옛이야기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결해가는 과정이 많이 있네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눈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예) 강자와 약자가 나와요. 약자들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 행복한 결론으로 끝나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요.

주인공이 작거나 어렵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3. 흥길동과 청길동의 같은 점, 다른 점 찾기

■ 옛이야기 ‘흥길동전’ 과 비교하기

tip. 흥길동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흥길동전의 책이나 그림책을 직접 보여주고 읽어주며 넓고 깊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 흥길동과 청길동 이야기의 같은 점을 찾아봅시다.

예) 이름이 길동이라는 점이 같아요.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가난하고, 신하들이나 양반들은 부자입니다.

백성들의 물건을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동은 처음에는 도둑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비슷해요.

주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Tip. 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의 다른 점을 찾아보거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찾아 보며 이야기를 다시 쓰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홍길동전	도둑 잡는 도둑, 청길동
조선시대 (세종 때)	옛날 옛적 까막까치가 울던 때
조선	어느 나라에
도둑의 두목이 되어 활빈당을 조직한다.	혼자 도깨비를 만나러 간다.
분신술을 사용할 수 있다.	말을 공주로 잠깐 변신시킬 수 있다.
서자로 태어나 차별을 받았다.	차별받지 않고 살고 있었다.
분신술과 재주를 부려 부정한 재물을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도깨비 방망이를 구해와 문제를 해결했다.
율도국의 왕이 된다.	공주와 결혼한다.

- 옛이야기를 작가의 관점으로 다시 쓴 그림책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이야기를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재미있어요.

나도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옛이야기가 말로 전해진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바꾸기 좋을 것 같아요.

옛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달라지기도 해서 비교하며 읽는 것이 재미있어요.

읽은 후

1. 인물들의 감정 상상하기 <활동지1 참고>

■ 등장인물들의 감정 상상하기

- 이야기가 끝난 후, 인물들의 감정을 상상하며 말풍선을 채워봅시다.

아래 감정 언어를 참고하여 써도 됩니다.

■ 말풍선의 내용 발표하기

- 친구들에게 자신이 적은 말풍선의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예)

임금 : 백성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고 지혜로운 사위를 얻어 행복하구나.

신하 : 망했다. 진작 나눠주면서 살걸 후회된다. 아, 배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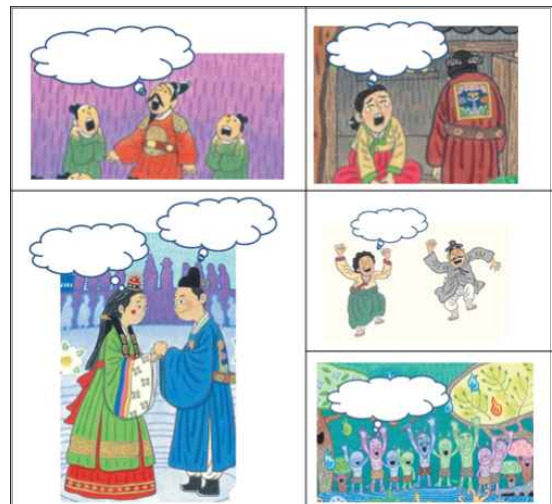
청길동 :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하다니 신난다. 좋은 일을 하니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려구나,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 내가 계속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공주 :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 든든해.

백성들 : 정말 신난다! 더 이상 억울하게 빼앗길 일이 없겠어. 기쁘다. 마음이 놓여.

도깨비 :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려고 했던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잘 도와주자.

또 공주를 보내줄 수도 있으니 기다리자. 기쁘다. 등



2. 뒷이야기 상상하기 <활동지2 참고>

■ 뒷이야기 상상하기

- 이전 활동에서 청길동, 임금, 공주, 신하, 백성들의 마음을 상상한 것을 바탕으로 뒷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모둠별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뒷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주님과 결혼한 청길동은 왕에게 찾아가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하들과 양반들은 백성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풍년일 경우 자신의 곳간만큼만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을의 관료나 왕에게 억울함을 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왕은 청길동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법관 판서를 내려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부정하게 재산을 모으는 일이 끝났구나! 싶어 청길동을 모함하려고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청길동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청길동이 정한 법으로 많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청길동은 아들 다섯과 딸 다섯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청길동과 공주의 결혼식에는 도깨비들도 왔습니다. 도깨비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청길동이 맘에 쏙 들어서 도깨비 마을에 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길동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언제든지 방망이를 빌려 가서 쓰라고 했고, 청길동은 방망이를 번쩍 들고 "이 방망이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망이는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잘 지켜볼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과 몇몇 양반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곳간이 비어 먹을 것이 없는 신하들은 청길동에게 와서 "이제 내가 굶어 죽을 지경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짹짹 빌었습니다. 청길동은 더 이상 백성들의 것을 함부로 빼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하면 딱 먹을 만큼의 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신 욕심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왕궁 앞에는 도깨비 방망이 조각상을 전시해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을 부리면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지요. 그 이후로 백성들은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 발표하기

- 모둠별로 나와 뒷이야기를 발표해보겠습니다. 발표한 후 친구들의 소감을 말해주세요.

예) 도깨비 방망이 조각상을 볼 때마다 신하들은 끄떡할 것 같아요.

뒷이야기를 꾸며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요.

3. 옛이야기 다시 쓰기 <활동지3 참고>

■ 옛이야기 살펴보기

-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옛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토끼와 거북이, 심청전,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토끼와 자라, 방귀쟁이 며느리, 망주석 재판, 재주꾼 오형제, 구렁덩덩 신선비, 햇님과 달님, 사윗감을 찾아나선 두더지, 흥부와 놀부, 흑부리 영감,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소가 된 게으름뱅이, 견우와 직녀, 우렁각시, 은혜 값은 호랑이, 효녀 심청, 콩쥐 팥쥐, 흥길동 등이 있어요.

■ 옛이야기 다시 쓰기

-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옛이야기 중 한 가지를 골라 여러분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옛이야기 책을 빌려와서 읽어봅시다.
- 등장인물을 바꾸거나 갈등에 대처하는 해결 방법을 바꾸는 등 자유롭게 생각하여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고른 옛이야기의 제목 : 선녀와 나무꾼
등장인물: 선녀, 나무꾼, 사슴
바꾸는 장면: 사슴이 나무꾼에게 옷을 훔치지 말고 말을 걸어보라고 했다.
제목: 사랑은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p>나무꾼은 결혼하고 싶었다. 하지만 주위에 여자가 없었고 늘 외로웠다. 그런 나무꾼의 마음을 알았던 사슴은 나무꾼에게 비밀을 알려주었다. 저 산 뒤로 가면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선녀들이 목욕하러 매주 수요일마다 온다는 것이었다. 가서 선녀가 목욕을 끝나치고 쉬고 있을 때 가서 말을 걸어보라고 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예전에 선녀의 옷을 훔쳐서 결혼했던 100년 전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절대 선녀의 옷을 훔치면 안 된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나무꾼도 잘 알고 있었다. 나무꾼의 고조할아버지가 선녀 할머니의 옷을 훔쳐서 결혼했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백 만번 정도 들었기 때문이다.</p> <p>수요일 아침 나무꾼은 예쁜 꽃다발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그 계곡으로 갔다. 정말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고 있었다. 숨어 있다가 목욕을 마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던 선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선녀들은 깜짝 놀랐다. 나무꾼은 자신에게는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맛있는 음식과 꽃다발을 선물했다. 선녀들은 친절하고 자상한 나무꾼과 친구가 되기로 했다. 그래서 그 날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선녀들과 나무꾼을 만났고 친구가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선녀에게 나무꾼은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선녀도 나무꾼의 친절함과 사랑에 감동하여 같이 살기로 했다. 물론 하늘나라도 자주 놀러 가기로 약속하며 서로 평등하게 지내기로 했다. 그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p>

■ 발표하고 소감 나누기

- 옛이야기를 다시 써보니 어땠나요?

예) 조금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 쓴 이야기들이 다 달라서 더 즐거웠어요.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친구에게 말을 하듯 글을 막 써져서 신기했어요.

옛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시 쓰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Tip. 『흔해 빠진 이야기는 싫어!』 (다비드칼리 글, 안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그림, 이경혜 옮김, 봄별, 2021)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이야기를 새롭게 보게 하는 그림책으로 옛 이야기 다시 쓰기 수업에 참고하기에 좋다.





뒷이야기 상상하기

이름 : ()

청길동, 임금, 공주, 신하, 백성들의 마음을 상상한 것을 바탕으로 뒷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모둠별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뒷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옛이야기 다시 쓰기

이름 : ()

• 내가 고른 옛이야기의 제목 :

• 등장인물;

• 바꾸는 장면:

• 다시 쓰는 옛이야기 제목;